

# 2020년 하계 공직기강 점검 결과

## 1. 점검 배경

-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·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자발적 공직기강 확립노력 강화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
  -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출장관리 및 비대면 업무방식(영상회의 등)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현황 및 개선사항·모범사례 등 점검

## 2. 점검 개요

- 점검기간: 2020.6.29.(월) ~ 2020.6.30.(화) <2일간>
  - 점검대상: 한국주택금융공사(6.29) · 한국자산관리공사(6.30) 부산 본사
  - 중점 점검사항
    - 과도한 출장 및 출퇴근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관리 미흡사례
    - 출장 감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영상회의·스마트워크센터 등 활용실태
    - 서울 집무실 운영(단순 보고를 위한 불필요한 출장 요인) 점검
    - 출장·외출 등 복무처리 준수여부
- ※ 주금공은 '20.1.16.(목) 당직근무상태 점검 시의 현지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

## 3. 조치 사항

- (현지조치 - 주금공·캠코 공통) 출장지 및 출장목적 구체적 적시 필요
    -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시 '출장목적'에 협의 대상기관·부서 및 협의내용을 적시할 것
- \* (예시) 업무협의 (X) →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공직기강점검 관련 업무협의 (O)
- (모범사례 - 캠코) 영상회의 기반 스마트 이사회 운영
    -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, 비상임이사는 서울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 개최 시 출장 수요 발생이 불가피함

- 또한 이사회 상정 안건의 비상임이사 보고, 임원 출장 시 수행 직원들의 출장, 전국 각 부점의 이사회 참석 수요 등으로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임
- 캠프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('18.6.22.)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'스마트 이사회'를 구축하였으며, 본회의 외에 '안전설명회'에도 영상회의를 활용함
  - ※ 비상임이사 근거지 현황('19.12월말) : 서울 4명, 부산 3명, 대구 1명
- 이로써 연간 약 71백만 원의 예산(출장비 등)을 절감\*하고, 업무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함

\* '19년 개최실적 기준 약 65.4백만 원의 여비 및 인건비 절감, 연환산 시 약 71백만 원

**< 영상회의를 활용한 이사회 운영 현황 >**

구분	운영방안	개최 횟수
안전 설명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개최지) 본사 영상회의실 + 소회의실('19년 추가)</li> <li>■ (참석방법) 현장 혹은 영상회의로 참석 가능</li> <li>※ 안전 설명 부점은 각 소재지에서 보고</li> </ul>	('19년) 15회 (20.6월) 8회
본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개최지) 서울사옥 14층 대회의실</li> <li>■ (참석방법) 현장 혹은 영상회의로 참석 가능</li> <li>※ 이사회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영상회의도 출석 인정</li> </ul>	('19년) 7회 (20.6월) 2회